



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험, 베트남과 공유한다

- 지식재산처, 베트남 지재권 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-
- 지식재산 가치평가부터 금융·기술이전 실무까지 한국형 지식재산 활용 경험 전수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6. 22.(월)~25.(목)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 유성구)에서 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, 대학·연구기관 관계자 및 기업 실무자 22명을 대상으로 「2026 한-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교육과정」을 운영한다.

이번 교육은 베트남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또한, 한-베트남 정상회담('26.4.22)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베트남 과학기술부(MST,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)가 체결한 「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」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. 이번 교육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.

이번 과정의 주제는 ‘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(IP Valuation & Finance)’이다. 참가자들은 ▲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▲지식재산 금융의 개념과 활용 ▲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정책 및 지원체계 ▲지식재산 수익화 전략 ▲사용권 협상 및 계약 실무 ▲기술이전 성공 사례 등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경험 전반을 학습할 예정이다.

또한 본 과정은 지식재산처, 한국발명진흥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기관이 구축해 온 한국형 지식재산 금융 지원체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, 베트남의 지식재산 금융 제도 발전과 혁신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식재산처 송성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이번 교육은 한-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의 첫 후속사업으로,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출발점”이라며, “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경험을 공유해 베트남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,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	책임자	과 장	김동국 (042-601-4350)
		담당자	사무관	문경록 (042-601-4332)
			주무관	박예지 (042-601-4310)

